

법조계 변해야 한다

2월 3일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고 비서실 직원들에게 "지금 개혁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며 "적당히 하면 굽아 터지고 다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심재문 대우 고검장이 박상현 법무부장관 주재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결정을 당한 날이었다.

국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심 고검장은 이종기 변호사 수임사건 비리와 관련하여 사표를 요구받자 그것이 부당하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그것이 검찰 조사의 '항명' 사건이라며 문제가 되었던 검사이다.

이런 고검장을 징계하는 위원회에서 정작 문제였던 백갑이나 전 범공 수사 부분은 징계사유가 지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참작만 하겠다고 한다. 징계 사유는 전혀 다른 데 있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이며, 당일 대구를 떠난 것이 근무지 이탈이며, 재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이 명령불복종이라는 것이다. 이런 징계들은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평생 살아온 7명의 징계위원들이 내린 것이기에 법적으로 옳고 그름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의 첫 발단은 무엇인가? 심 고검장과 관련된 비리를 조사함에 있어서 과연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가? 그 진실은 가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야 한다.

징계의 주요 대상이 된 성명은 그 이후의 결과이다. 그리고 성명은 적어도 일한 국민이 보기에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기 보다는 용기있는 행위이며, 검찰 조직 전체가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검찰을 살리려는 충정의 표현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 자체를 문제 삼아 심고검장을 면직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

편으로 현재 사건만을 모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발전에 참모로 불행한 일이다.

자연적 생명체인 사람 개인도 정신과 신체로 나뉘어져 갈등과 조화를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정신도 이성, 의지, 감정 등이 서로 투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의 큰 조직체가 한 몸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다. 또 그것이 비밀스런 강과 조직이라면 몰라도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조직 자체에서 조직을 비판하고 늘 새롭게 도전하는 구성원이 없을 때 오히려 조직은 썩어 붕괴될 위험성이 많다. 그러므로 조직의 비판자를 이 단자로 몰아 잘라 내기보다는 그런 소리로 경청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세와 자비를 가져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국가 조직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옳은 것을 위해 기존 체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투쟁해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을 전 사회적으로 삼아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크게 변해야 한다. 전법공이나 전관 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과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제도개혁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심고검장이 성명에서 제기한 검찰을 정치로부터 중립화시키는 길이며, 국가의 통치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김중권 비서실장이 밝힌 옳은 개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조금 늦더라도 진실 위에서 추진하는 개혁일 것이다. 예전처럼 가시적 인과과만 노리고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해서 일을 대충대충 처리하면 다시 그르치고 만다. 시대가 달라졌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조그만 것에 이르기까지 욕망을 가지고 정적하며 온 정성을 쏟아야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효범
 (경주대 교수·국민윤리교과목)

“비판의 소리 경청 개혁 추진할때 ‘국민의 검찰’ 된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아난 유엔사무총장 세계경제포럼서 강조
 유네스코 '21세기 보편윤리헌장' 제정 추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을 통해 각국의 정·재계 지도자들에게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촉구했다.

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주도로 입안되고 있으며, 유엔에 의해 '평화문화의 해'로 지정된 2000년 말레니엄 유엔정상회의를 전후로 채택될 전망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대립과 투쟁은 탐욕에서 비롯됨을 갈라했다. "형과 왕이 싸우고, 장자와 장지가 싸우는 것은 탐욕에 매이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불세존께서는 탐욕과 견욕(見慾)의 매임에서 벗어난 분이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분이다." 다름이 없는 세상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탐욕을 버려야 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가 지구촌의 주요 테마로 떠올랐다. 이 주제를 던진 사람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아난 총장은 1월 3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책임있는 세계화, 세계화의 충격관리'를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우리는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세계화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 강조하고 "환경에 대한 좀더 큰 세계화와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가톨릭의 교황 요한 바오로2세도 1월 23일 "이념과 시장의 범칙만을 강조하는 제도인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자원의 공평한 분배 등이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마침 유네스코도 '새로운 천년을 여는 21세기'에 인류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변할 '21세기를 위한 보편윤리(universal ethics) 헌장'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과 25조로 구성된 '보편윤리' 시안에는 '모든 인간은 인도적으로 대접되어야 한다' '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비폭력과 생명 존중' '동료와 정의로운 경제질서' '관용과 정직성' '남의 동등권리와 협력자 관계'가 원칙으로 포함되어 있다. 환경오염, 무력 대처, 황금만능주의, 남녀·인종 차별을 넘어서 '평화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인류의 염원을 실현키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헌장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

석굴암과 불국사-해인사 팔마대장경 등 문화부 관광이벤트화 추진

전통문화 훼손우려 ... 불교계 관심가져야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팔마대장경 등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행사를 관광 이벤트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2003년까지 8조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광비전 21'을 발표했다. 국제수준의 관광자원 확충,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 구축 등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틀을 제시했다.

내년에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을 대비해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문화관광부는 이 계획이 완성되면 연 7백만명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해 1백2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을 7개 문화관광권으로 나눈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인사동 테마거리 조성,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 백제문화재 국제화 등 50개 특화관광 중점사업도 제

시했다. 문화재, 전문분야 등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개발도 지원한다.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은 불교와 무관하지 않다. 문화자원, 문화재, 전통문양은 바로 불교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관광 당국과 불교계와 협조는 긴밀해야 한다. 그런데 체계적인 관광상품 자료에 불교문화체험이 빠진 것은 행정당국의 세심함이 결여된 부분으로 지적된다. 산사 숙박 체험, 선승련참가는 불교문화의 정수이다. 이미 대흥사 봉은사 등 몇몇 사찰에서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와 문화가 훼손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해인사 인근의 팔마대장경은 해인사와 불교예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않았다. 몇몇 업자와 자치단체의 수익성 제고에 문화유산의 보존은 뒷전으로 밀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히 지지 못하는 이유이다. 문화관광부의 감독이 요구된다.

정성운 기자

“매춘은 여성폭력” WWC, 합법화 금지 세계각국에 촉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50개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세계여성평화회의(WWC)가 여성의 매춘을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해줄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다가 선언"을 발표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사흘간의 회의를 끝낸 후 1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WWC는 "매춘과 성 매매행위는 인간 조건에 있어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WWC는 "각국 정부는 매춘을 합법화하거나 매춘을 직업이나 오락, 경제의 한 분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섹스관광에 대한 단호한 조치, 인터넷의 섹스상호화 금지, 여성 인신매매 금지, 여성에 대한 재정 기술적 지원 등 28개항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생활정보

- 조상재산 상속에서 확인**
 ○ 생활: 행정자치부는 3일 '조상재산 찾기 즉결민원처리' 제도를 도입, 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해 토지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 1~3시간 내에 즉석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민원인은 상속인의 신분증과 호적등본 등을 구비해 행정부 국토정보센터에 토지정보열람을 신청하면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엔진오일 교환주기 1만km**
 ○ 자동차: 승용차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1만km.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자가용 운전자들은 평균 6천1백10km를 타고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성년자 핸드폰 바로 해약**
 ○ 통신: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가입한 이동전화번호를 바로 해지해주는 이동전화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월 25일 "미성년자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계약을 했을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다큐멘터리 '눈' 양코르방송**
 ○ 방송: EBS-TV는 '눈'을 땅으로서의 의미 외에 생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공존의 생태적 의미로 새롭게 조명된 자연다큐멘터리 '눈'을 양코르 방송한다. △1부 '사람의 땅, 생명의 터', △2부 '인간, 그들과의 공존'이 16, 17일 밤 9시45분 방송된다.
- 주부습진 예방 관리법**
 ○ 건강: ▲청소 세제 설거지 등을 할 때 미지근한 물을 이용한다. ▲자주 보습제를 바른다. 손을 씻은 뒤 2분 이내, ▲자극성이 심한 양면천이나 파일이 직접 손에 닿는 일도 피한다. ▲반지를 건넌 일하면 세제 성분이 반지 밑에 남아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빼고 일한다. ▲물 1/1 녹말과 중조(소다)를 각각 5g씩 넣은 뒤 습진 부위를 10~20분 정도 담그면 피부가 덜 건조해 진다.
- 마늘·영지버섯 암 예방**
 마늘과 영지버섯에 장암과 위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화학과 양철학교수 연구팀은 2일 "남을 유발하는 라스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연구하던 중 마늘의 알리신과 영지버섯의 가노데릭산이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고 밝혔다.

뜻대로 사는 길 아·박·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매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박타를 경험하세요!

- 아박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박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박타 코스는 종교색이 아닌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박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회두를 잠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하게 한다.

"아박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맞지 않을 정도로 큰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박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옵니다. 아박타의 이름으로..

- 아박타코스는 7-9월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박타센터에서는 매일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박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시요.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박타 센터 0523) 381-1143
 011) 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동사초 근처)

건강에의 신비! 옥

五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정신적으로도, 병고에도
 너무 힘들 때는 옥을 같이 사용하세요!

-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앙귀비는 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 옥도자기 태일위에서 원위를 기른 결과 솟는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강규박사팀)
- ※ 심장병, 당뇨, 뇌졸중(중풍), 동맥경화등의 순환기장애에는 90% 이상의 효과. 제일 못하다는 신경통에도 60%의 확률입니다. 50%의 효과면 선약이라고도 합니다. (한방의 새세계인 권민희 박경희병원 원장보고서)

제 옥목걸이, 반지, 팔찌, 108염주, 단주, 칠선옥목걸이, 한자용 옥목걸이, 품, 침구류, 복대, 무릎대, 옥비누의 기초화장품, 녹차의 옥도자기

신 옥목 108염주 (10mm알, W60,000) 목걸이 겸용 옥목 혼합제 제 품, 무거운 것을 싫어하시는분 적합, 건강증진 기명발맥 通氣, 품 마음자리를 잘 붙고 있고, 담진자의 職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옥에는 기(氣)와 옥과 맹물같이 기가 만나오는 발육이 있습니다. "옥을 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요?" 하면 그 옥은 이미 기옥이 아닌 벌옥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체크해 보세요.

서울지토 **五山家** (02)777-0105 (백옥옥)

중앙불교합창단 단원모집

지난 1994년 3월에 창단된 사단법인 중앙불교합창단에서 21세기 불교음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단원을 모집합니다.

중앙불교합창단은 뿌리 깊은 불교음악 연구와 새로운 불교음악 창달 및 보급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불심으로 하나가 되어 그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불교합창단에서는 그 동안 끊어졌던 불교음악의 시대적 공백을 이어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불교음악의 발전과 더불어 민족음악의 터전을 일구어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교음악뿐만 아니라 국악과 가극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을 통해 개개인의 음악적 소양을 제고하고 중단 행사 참여는 물론 국립국악관현악단, 중앙국악관현악단 등과의 협연을 통해 각종 무대에서 보다 향상된 음악을 선보일 것입니다.

● ● ●

- 분 야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각 파트 30명씩)
- 자 격 : 음악 전공자 및 성악에 소질이 있는 여성
- 서 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사진(반장형) 2매
- 접 수 처 :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산 24-17 중앙국악관현악단 (동기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접수기간 : 1999년 2월 28일 도착(우편) 및 접수완료
- 오디션 : 1999년 3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
 시흥의 노래(지정곡), 자유곡(1곡)
- 발 표 : 1999년 3월 10일까지 개별통보
- 문의전화 : (02)896-2091/2 (중앙국악관현악단)

사단법인 중앙불교합창단
 이사장 박 범 훈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력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를 일반 기기를 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 심야전기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를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통풍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온수기: 미리 저정한 온수를 사용하므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므로 마루방담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 문의전화 ■
 0343) 468-7200(대)
 영일부: 0343) 445-6090
 FAX: 0343) 445-3370